

201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A형]

1	①	2	⑤	3	①	4	②	5	⑤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④	15	⑤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②
21	⑤	22	⑤	23	④	24	③	25	②
26	③	27	①	28	③	29	②	30	③
31	⑤	32	④	33	③	34	④	35	⑤
36	⑤	37	⑤	38	④	39	⑤	40	⑤
41	①	42	①	43	④	44	⑤	45	③

[화 법]

1. [출제의도] 발표 전 준비 과정 파악하기

‘독서 캠프 개최’를 준비하는 학생이 발표를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메모의 처음 부분에서 밝힌 ‘독서 캠프의 중요성 강조’와 관련된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두 번째 문단에서 독서 캠프 만족도가 낮음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세 번째 문단에서 독서 캠프 만족도가 낮게 나온 원인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독서 캠프 만족도가 낮게 나온 원인으로 독서 캠프 운영 미숙을 언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독서 캠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세 번째 문단에서 독서 골든벨 순서 조정 및 진행 요원 확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이 발표에서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① 시각 자료를 화면에 제시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표자가 시각 자료를 제시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설문 조사 결과 그래프에 나타난 구체적 수치와,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적합하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평가적 듣기의 전략 파악하기

이 대화에서 정아의 이야기에 대해 민수가 사용한 듣기 전략은 ‘평가적 듣기 전략’이다. 다양한 평가적 듣기 전략 중에서 벽은선에 대해 정아가 얻은 정보의 출처를 묻고 있으므로 민수가 사용한 평가적 듣기 전략은 신뢰성을 평가하며 듣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감정적 호소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평가하며 듣기는 긍정성 평가인데, 이 대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내용이 사실 판단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평가하며 듣기는 긍정성 평가인데, 이 대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내용이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며 듣기는 타당성 평가인데, 이 대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자료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며 듣기는 타당성 평가인데, 이 대화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4. [출제의도] 화법의 성격 파악하기

성준과 가람의 대화에서 화법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B]에서 가람과 성준의 대화에서 발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면 수용된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B]를 통해서 알 수 없다.

① [A]에서 성준의 ‘화가 난 표정’에 대해 가람이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시끄러운 식당에 있었다는 말을 통해 의사소통에 있어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에코백에 대한 배경지식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⑤ [E]에서 △△ 상가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 상가에서 △△ 상가로 목적지가 즉각 변경되었으며,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버스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즉각적인 상호반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화의 함축적 표현 파악하기

가람과 성준의 대화에서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를 찾는 문제이다. 발화 의미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화 맥락을 통해 이를 추론해야 하는 경우는 ㉠이다. ‘그럼 ○○ 상가에 갈까?’라는 성준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가자’, ‘가지 말자’라는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 상가에서 할인 행사 하던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 상가로 가지 말고 △△ 상가로 가자’라는 의도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건축학파에 진학하기 위해 건축 박람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철활동 관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글의 목적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직업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포트폴리오에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하거나, 기본 정보에 봉사활동 날짜와 장소, 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방과 후 활동 내용을 제시했으며, 요리 과정에서 자신의 진지한 자세를 (ㄷ)에 작성하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④ 기본 정보에 책 제목과 읽은 날짜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ㄷ)에 독서 동기가 중심 내용을 작성하려는 것은 세부적인 활동 내용에 동기나 목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자신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그림 자료와 함께 실제 사진 풍경을 배치했다는 것은 풍경을 잘 그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1과 (나)-2를 통해 자녀들의 신규 취업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녀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비 부담 역시 늘어나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한 교육비로 인해 제대로 된 은퇴 준비를 할 수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신규 취업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 우리나라 부모 세대의 은퇴 준비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아 부모 세대의 노후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가)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은퇴 준비 기간이 짧은데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로 인해 부모들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실태가 제시되어 있고, (나)-1은 가계 소비 중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높다는 자료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③ (가)는 부모 세대가 은퇴 연령이 낮아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료이고, (다)에는 청년 연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2는 부모의 은퇴 연령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자녀들이 신규로 취업하는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다)에는 부모 세대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청년 취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내용 생성 평가하기

‘갑작스러운 감기의 방문으로’에서 의인법을, ‘불청객 같은’에서 직유법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작은 습관’을 통해 실천적 방안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의인법과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권유하고자 하는 실천 방안이 학교 신문에 실린 글의 내용과 다르다.

③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의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과제 수행 기록’에서 ‘후배들이 친근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려 그때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예상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교차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그리고’로 연결된 앞뒤 문장이 순접 관계에 있으므로 ‘그런데’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므로 ‘하고’ 성적이 하락하고 자격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로 고쳐야 한다.

② ㉡의 앞뒤 문장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은 이중 피동기므로 ‘위촉되어’로 고쳐야 한다.

⑤ ㉤에서 ‘겪다’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자갈이 어려움을 겪더라도’로 고쳐야 한다.

[문 법]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모기>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인접한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음이 바뀐 것은 ‘꽃’, ‘부엌’으로 ㉠에 해당하며, 자음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변한 것은 ‘곡물’, ‘숙는다’, ‘만머느리’로 ㉡에 해당한다.

① ㉢의 ‘굴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의 ‘꽃’은 ㉠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숙는다’, ‘만머느리’는 ㉡에 해당하는 사례이므로, ㉤의 ‘굴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굴이’는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굴이’는 모음의 영향을

을 받았으므로, ㉞의 ‘부엌’은 ㉡의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형태소의 기능과 위치에 따른 분류 이해하기

㉡의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형식형태소에 해당한다.

- ① ㉠의 ‘-ㅅ’은 동작을 나타내는 실질형태소이다. ② ㉢의 ‘하늘’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형태소이다. ④ ㉡의 ‘-면서’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며 뒷말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이므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형태소이다. ⑤ ㉡의 ‘-시-’는 문장 안의 주제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어말어미 앞에 위치하므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형태소이다.

13. [출제의도] 접사의 종류와 기능 이해하기

‘살다’는 동사이며 ‘되살리다’도 동사이므로, 접두사 ‘되-’와 접미사 ‘-리-’에 의해 품사가 바뀐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의 ‘-히’와 ㉡의 ‘되-’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다’는 의미와 ‘다시’라는 의미로,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② ㉢의 ‘-고’는 어근과 결합하여 ‘살다’의 품사를 동사에서 명사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③ ‘-리-’는 어근과 결합하여 ‘살다’를 사동의 의미를 갖게 한다. ⑤의 ‘-히’와 ‘-고’는 각각 어근의 앞과 뒤에서 결합하는 접두사와 접미사이다.

14. [출제의도] 관형절 이해하기

‘다섯’은 수관형사로서 단위성 의존명사 ‘개’를 꾸며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만, ‘동전 다섯’은 문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동전 다섯’을 관형절로 진술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유명한’은 용언인 ‘유명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관광지’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그녀’는 체언인 ‘그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화단’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산’은 용언인 ‘사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말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명사 ‘꽃’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어느’와 ‘그’는 관형격 조사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말로서 품사는 관형사이며, 제시된 문장에서 각각 명사 ‘지역’, ‘사실’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5. [출제의도]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이해하기

(가)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문어 담화로서 (나)에 비해 기록성과 보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경우 ‘택시 기사가 손님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라는 정보만 제공되는 것에 비해 (가)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습득(분실)한 금액, 날짜, 시간, 경찰서에 신고한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나)에서 ‘대단하네, 그 사람’은 문장의 순서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이) 대단하다.’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나)에서 ‘근데’, ‘난’ 등의 줄임말은 일상적 구어 담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는 일상적인 대화이자 구어 담화의 사례인데, ‘그 애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가방의 주인이)’ 사례를 썼는데도 안 받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문어 담화에 비해 구어 담화에서는 조사나 주어 등의 문법 요소가 자주 생략됨을 알 수 있다.

[독서]

[16~17] <출전> 홍석주 원저, 리상용 역주, 『역주 홍씨 독서록』

16. [출제의도] 독서의 방법 적용하기

능숙하게 글을 읽기 위해서 제시한 단어나 문장 등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나이가 따르기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구절은 글쓴이 자신이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독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 ①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요령’이라는 것은 독서의 방법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문맥을 통해 글쓴이의 의도를 짐작하는 것으로, ‘그가 나처럼 마구 읽어서 요령을 얻지 못할까 염려된다.’에는 동생을 걱정하는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단어나 문장 등을 통해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에’를 통해 앞 문장과 뒷문장이 인과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으로, ‘제목을 나열하고 그 대강의 내용을 기록’하여 동생에게 독서 목록까지 전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동생의 주제적인 독서를 방해할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독서의 방법 파악하기

‘홍씨독서록’은 동생을 걱정하는 형이 책을 선별하여 읽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글이다.

- ②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가 경계하는 바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③, ④, ⑤는 글에 제시된 정보가 아니다.

[사회]

[18~21] <출전>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18.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은 소비이론의 종류인 절대소득이론, 항상소득이론, 생애주기이론을 설명한 글이다. 절대소득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① 이 글에서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②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③ ‘처분가능소득’과 같은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사회적 통념이나 그에 대한 의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19. [출제의도]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의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하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를 통해 ㄱ의 진술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의 ‘항상소득이론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를 통해 ㄴ의 진술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와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보았다.’를 통해 일시소득이 증가해도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ㄷ의 진술은 적절하다. 항상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기 때문에 ㄹ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3문단의 ‘즉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소비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울’의 소비 행위는 생애주기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1문단의 ‘즉 개인의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를 통해 본다면 일생에 걸친 ‘울’의 소비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③ 3문단의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소비하기보다는 청년기의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된다.’를 통해 타당한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보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이해와 적용

㉠의 ‘부른다’는 사물, 개념, 대상 등을 일컫는다는 의미이다. ①은 ‘글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서 청하다.’는 의미이다. ②는 ‘소리 내어 노래를 하다.’는 의미이다. ③은 ‘물건 값을 말하다.’는 의미이다. ④는 ‘소리쳐 남을 오라고 하다.’는 의미이다.

[과학]

[22~24] <출전> 권영명 외, 『식품생리학』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이 글은 식물의 질소 고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인 콩과 식물과 뿌리혹 세균과의 공생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뿌리혹 형성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뿌리털에서 화학 신호를 방출하여 뿌리혹 세균을 유인한다. 이후 뿌리혹 세균은 감염사를 형성하여 피층 세포 안으로 들어가 피층 세포를 감염시킨다. 감염된 세포 안에서 뿌리혹 세균은 박테로이드로 변환한 후 성장호르몬을 분비한다. 감염된 세포의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촉진되어 숫자가 많아지면 뿌리 밖으로까지 공간을 확장시켜 혹과 같은 모양으로 커지는데 이것을 뿌리혹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 단계에는 ‘감염된 피층 세포의 분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①, ②, ③은 ‘뿌리혹 세균의 침입 및 감염’ 단계에 해당하며, ④는 ‘뿌리혹 세균 유인’ 단계에 해당한다.

23. [출제의도] 추론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첫 번째 그림은 뿌리혹 세균이 식물 뿌리 피층으로 침입하여 피층 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의 일부이며, 두 번째 그림은 뿌리혹이 형성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은 뿌리혹 세균, ㉡는 감염사, ㉢는 감염된 세포, ㉣는 박테로이드, ㉤는 뿌리혹을 나타낸다. 뿌리혹 형성 인자는 유인된 뿌리혹 세균이 침입 단계에서 분비하는 것이므로 ㉠, ㉡와는 관계가 없다.

- ① 4문단의 ‘이때 피층 세포 안으로 침입한 뿌리혹 세균은 운동량이 적어지고 크기가 커진 ‘박테로이드’라는 세균 형태로 변화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뿌리혹 세균은 감염사를 만들면서 피층 세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통로를 마련하여 세포를 감염시키게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박테로이드는 성장호르몬을 분비하여 감염된 세포의 분열을 비정상

적으로 촉진시키고 감염된 세포가 증식하여 개수가 늘어나면'이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질소 분자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했으며, 2문단에서 '질소 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 고정 효소라고 했다. 또한 5문단에서 '뿌리혹 내부의 산소 농도 조절'을 통해 '질소 고정 효소의 작용'이 유지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1문단의 '원자 두 개의 강력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질소 분자에 수소를 첨가시켜 질소 원자 간의 결합을 끊어'라고 했으므로 질소 분자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박테로이드 속에 있는 질소 고정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희박한 환경이어야 하지만 박테로이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반대여야 한다.'를 통해 박테로이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 술]

[25~27] <출전> 김민복 외, 『최신자동차전기』

25. [출제의도] 핵심 요소의 기능 이해하기

이 글은 운전석 에어백의 작동 원리와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운전석 에어백은 충돌센서와 안전센서가 모두 전기 신호를 보내야만 작동한다. 그런데 3문단에서 '충돌센서보다 더 뒤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충돌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더 커야만 전자제어장치에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운전석 에어백이 큰 충돌에만 작동하게 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어백이 작동되는 조건을 한정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① 안전센서는 운전석 에어백이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는 시점을 예측하는 장치라고 할 수 없다. ③ 안전센서는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기 위해 충돌을 감지하는 구성 장치이지만,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없다. ④ 안전센서는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만,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는 순서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없다. ⑤ 순식간에 질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석 에어백이 짧은 시간에 팽창된다는 사실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안전센서가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26. [출제의도] 요소 간의 관계 파악하기

<보기>는 운전석 에어백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자동차 내부 구조로, ㉑는 좌측 충돌센서, ㉒는 우측 충돌센서, ㉓는 안전센서, ㉔는 점화장치, ㉕는 가스 발생제이다. 3문단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앞부분을 기준으로 안전센서는 충돌센서보다 더 뒤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충돌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더 커야만 전자제어장치에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㉑가 단독으로 작동할 때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㉒와 ㉓가 동시에 작동할 때 받는 충격의 강도는 더 크다.

① 2문단의 '두 개의 충돌센서 중 한 개만 작동해도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② 2문단의 '안전센서도 전기 신호를 보내야 전자제어장치가 작동'된다는 설명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④ 3문단의 '충돌센서와 안전센서로부

터 전기 신호가 전자제어장치로 전달된 경우 전자제어장치는 이를 심각한 충돌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점화 장치에 점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⑤ 4문단에서 '산화철은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촉진될수록 아지드화나트륨의 분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질소 가스도 급속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㉔로부터 높은 열이 전달되더라도 ㉕에 산화철이 없다면 질소 가스의 발생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자동차가 정면충돌하면 충돌센서와 안전센서의 물리가 움직여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기 신호가 전자제어장치를 작동시킨다. 따라서 전자제어장치를 작동시키는 데에 직접 작용한 에너지는 물리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한 전기 에너지이다. 한편 전자제어장치의 작동에 의해 점화장치의 필라멘트가 가열되어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㉑에 들어갈 내용은 전기 에너지, ㉒에 들어갈 내용은 열 에너지이다.

[인 문]

[28~30] <출전> 한형주 외, 『21세기의 동양철학』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동양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글의 앞부분에서 공자의 '도'의 개념을 설명한 후, 공자와 노자, 공자와 한비자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 '동양철학에서의 도', 부제로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 고찰'이라 한 것은 적절하다.

① 부제인 '무위를 따르려한 사상가들'에서 무위를 따르는 것은 노자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표제인 '인격 배양의 길'은 공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부제인 '노자와 비교되는 공자의 길'도 한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표제인 '도를 따르는 삶'은 도의 개념이 아닌, 따르는 삶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부제인 '노자와 한비자의 서로 다른 생애'는 공자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부제인 '공자와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은 노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중심 개념 비교하기

㉑은 '공자가 말하는 도'이고, ㉒은 '노자의 도'이다. 4문단의 '규정할 수 없는', '공자의 인위적 규범인 도와 달리' 등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① 2문단의 '도는 인간의 내면에서 연유된 수밖에 없다'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2문단의 '인간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4문단의 '그는 도를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이라 보고'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2문단의 '객관화된 인간의 행동규범'과 4문단의 '노자의 도는 공자의 인위적 규범인 도와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㉑은 '공자', ㉒는 '한비자'이다. 2문단의 '인간이 자기 자각과 훈련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로 보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도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수치를 알고 또 올바르게 된다'로 보아 왕이 죄인을 풀

어준 것은 덕과 예로써 다스리려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3문단의 '그 사회는 법제도보다는 인격, 형벌보다는 감화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였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④ 5문단의 '인격을 통한 감화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⑤ 5문단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다'와 '그는 공자에서 비롯된 유가의 길치레를 비판하고 엄격한 형벌의 집행을 주장했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현대시]

[31~33] <출전> 이광익,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자 또는 독자가 이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밤이 앞כות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에 추상적 대상인 '밤'이 손을 흔든다고 구체화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②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에서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반복하여 고향에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③ 이 시는 '우라지오'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그리움의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살살게 짓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림'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 시구라 할 수 있다.

① <보기>의 내용 가운데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명에 해당하는 시의 구절은 '걸어온 길가에 쫓겨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욱 자욱을 뉘우칠 줄 모른다'이다. 여기서 '뉘우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②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에 어머니로부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까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우라지오'라는 곳을 동경했음을 보여준다. ③ 이 시의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꺼워서' '가도오도 못'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다. ⑤ [B]는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과거 회상의 내용이다. 그리고 [C]의 앞부분에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라는 표현에는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이해하기

㉑은 이국땅에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부두'로 온다. 따라서 ㉑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㉒은 어머니에게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므로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① ㉑에는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

는다. ② ㉠에는 화자의 과거를 성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은 추억 속의 시간이므로 화자의 심적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간이므로 화자가 ㉠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없다.

[고전소설]

[34~37] <출전> 작자 미상, 『김연향전』

34.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 방식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인향이 정씨에게 모함을 당하고 좌수의 명예 위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인향이 자신의 처소에서 좌수의 앞으로 이동하고 또 심천동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만, 이 과정에서 인향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② 배경 묘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상징적 소재가 활용되지 않았다. ⑤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인형이 정씨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계모에게 행여 득죄할까 염려하고 지내더니’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비현연관계의 이기심은 오히려 정씨가 인향 집안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므로 인형의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① 정씨가 인향과 인함을 뒷방에 가둔 것은 ‘계모 친 소생을 낳은 후로 마음이 점점 변하여 우리 형제 뒷방에 갇혀 있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정씨가 인향과 인함을 미워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인향이 좌수에게 인향의 구명을 간절히 청원하는 것은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후일 무슨 일이든지 소자가 담당하오리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인형이 자기 누이인 인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인향이 좌수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은 인향이 인형을 따라 심천동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인향이 아버지의 명을 따르는 모습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정씨가 인향을 비난하며 효를 언급하는 것은 ‘또한 양반의 자식이 되어서 불효가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효’라는 유교 윤리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용하여 인향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6.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인향은 [A]에서 좌수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B]에서 자신이 죽은 후 인함의 안위를 좌수에게 부탁하고 있다.
① 인향은 [A]에서 좌수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B]에서 다른 인물을 격려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향은 [A]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인향은 [A]에서 다른 인물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인향은 [A]에서는 좌수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B]에서 좌수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이 이해하기

㉠은 좌수가 인향에게 죽으라고 명을 내리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인향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는다. 즉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좌수의 명을 들은 인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인향의 반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은, ‘맑게 갠 하늘의 벼라, 즉 뜻밖에 일어난 큰 사건’을 의미하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이다.

①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만사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감’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유구무언(有口無言)’은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좌고우면(左顧右盼)’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8~40] <출전>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38.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에 따른 풍류를 즐기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연시조의 내용과 구조 이해하기

(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세종 대에 지어진 작품이다. 화자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는 작품에서 찾을 수 없고, 화자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가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 때문이라는 근거도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각 수의 조장과 중장은 주로 강호 자연에서의 개인의 풍류와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장과 중장에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이 몸이 ~해움도’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강호 자연에서의 화자의 풍류와 흥취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이 ~해움도’가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시다’는 화자가 신하의 입장에서 임금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군은 이삿다’를 화자가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는 <보기>의 설명을 볼 때, 화자가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하기

㉠은 ‘오늘이’와 ‘내일이라’, 그리고 ‘부족하니’와 ‘유여하랴’가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 ‘유여하랴’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은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경치를 감상하느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① ㉠은 ‘강파를’ ‘유신’하다 하여 강물에 인격을 부

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는 ‘삿갓’과 ‘누역’을 사용하여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가을의 안빈낙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은 누렇게 익은 곡식의 모습을 ‘황운’에 비유하여 풍성하게 익은 곡식이 넓은 들panse 펼쳐진 모습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은 ‘경궁요배’, ‘옥해은산’과 같이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소설]

[41~43] <출전> 임철우, 『뒤안에는 바람소리』

41.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 전개상 기능 파악하기

㉠은 ‘형술’ 일행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들이 형술이 숨어 있는 대나무밭을 향해 이동하는 발자국 소리가 다. 또한 ㉡은 경찰들이 ‘형술’ 일행에게 투항하기를 요구할 때 사용한 확성기 소리이다. 이 소리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소리들은 을석이나 어머니의 성격 변화를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이 소리들로 인해 인물의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소리들은 을석의 내면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능은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소리들로 인해 현재 인물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의 개선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42.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형술이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인물의 희생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이로 인해 자기만의 의식 세계에 빠져 주변 상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형술이 죽은 후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만의 의식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울면서 떨고 있는 을석의 어깨 위에 어머니의 몸통이가 걸처지는 것은 을석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이며, 형술의 죽음 이전의 사건이므로 인물이 받은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을석은 형술의 말을 생각하면서 두 귀를 꼭 틀어 막고 있다. 즉 죽마고우인 형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을석이 어머니가 지서에 신고하러 갔다 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것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을석은 형술의 죽음 이후 예민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만의 의식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방문을 뒤흔치거나 을석이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은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형술의 죽음 이후 을석은 자기만의 의식 세계에 빠져 닫힌 공간인 방 내부에 있게 된다. 주변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을석은 바람이 방문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자마자 문고리를’ 따고 나간다. 따라서 을석이 방 외부로 이동한 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음식은 방에서 수상한 소음을 듣고 형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방 외부로 나가려고 하지만 어머니에 의해 좌절된다. ② 음식은 닫힌 공간인 A와 C를 벗어나 열린 공간인 B와 D로 이동하려고 한다. ③ 방 내부에서 경찰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은 음식은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방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 ⑤ ‘밤’에 방 외부로 나온 음식이 자신을 변명하며 ‘형술’ 일행이 죽은 대나무 숲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이 ‘새벽’에 방 외부에 있던 ‘형술’ 일행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필]

[44~45] <출전> 이어령,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

44.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은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한 후, ‘시인은 나비의 언어로 삶의 의미를 따내야만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①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② 과거에 겪은 일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며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지도 않는다. ③ 자연물인 ‘벌’과 ‘나비’가 꿈을 얻는 과정에 빗대어 일상적인 자연 언어나 과학적인 ‘메타’ 언어, 그리고 시인의 언어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변화된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옛 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4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은 빵을 굽는 사람이 말한 ‘빵’이므로 말의 기호가 뚜렷한 코드에 실려 일직선으로 날아간 사례이므로 글쓴이가 언급한, 자유와 즐거움이나 자기 표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인의 언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은 꽃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벌의 언어’에, ㉡은 나비처럼 복잡한 곡선을 긋고 움직이는 ‘나비의 언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인의 언어’는 코드에서 이탈하고 또 변칙을 일으키므로 메시지 주변을 맴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메시지의 명확한 전달보다는 해석의 다양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은 일반적인 의미의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제한적이며 이는 벌처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일상적인 자연 언어라고 할 수 있다. ⑤ ‘언어도 마찬가지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같은 목적’이라는 내용을 통해 ㉠, ㉡ 모두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